

공격행동은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통칭하며(Coie & Dodge, 1998), 생후 18개월 전후 이른 시기부터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다(Eron, 1982). 특히 아동기에 발현되는 공격성은 이후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공격적인 아동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확률이 높고, 청소년기에 내재화 및 외현화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또한 아동기 공격성은 청소년기 비행 및 성인기 범죄행동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Newman, Caspi, Moffitt과 Silva(1997)의 연구에서는 영아기에서 성인기까지 공격적 행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심각한 품행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공격성은 가족관계에도 심각한 폐해를 안겨주어, 공격적 아동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부모 및 형제관계에서 강요와 처벌, 강압이 오가는 공격적 패턴의 상호작용을 촉발시킬 수 있다(Patterson, 1986).

과거,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는 때리기, 밀기 등의 외현적 공격성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아동기 공격성을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격대상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상대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언어적 공격성으로 공격성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의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보복적인 행동을 하는 반응적 공격성과 목적달성을 위한 주도적 공격성으로 공격행동을 세분하기도 한다(Dodge, 1991). 혹은 공격대상에게 공격행위를 하는 직접적 공격성과 소문 퍼트리기, 타인 조롱하기

등처럼 또래관계를 방해하는 우회적인 방식의 공격행동인 간접적 공격성/관계적 공격성으로 하위유형을 나누거나(Grick, 1995), 타인에게 손상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공격성과 영토획득이나 자기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공격성으로도 공격성의 하위유형을 구분한다(Feschbach, 1970).

한편 문제 행동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공격행동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한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60개의 요인분석연구들을 탐색하여 아동의 공격행동을 분류하는 두 가지 차원을 확인하였다(Frick, Lahey, Loeber, Tannenbaum, Van Horn, Christ, Hart & Hanson, 1993). 첫번째 차원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명백한가(overt), 은밀한가(covert)이고 두번째 차원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파괴적인가(destructive), 비파괴적인가(nondestructive)이다. 이에 따라 Frick 등(1993)은 아동들을 비파괴적이고 명백한 집단(반항적 oppositional), 파괴적이고 명백한 집단(공격적 aggression), 비파괴적이고 은밀한 집단(지위위반 status violation), 파괴적이고 은밀한 집단(기물파괴 property violation) 이렇게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반항적 집단은 ‘성마름’, ‘성가시게 굴기’, ‘고집이 셈’, ‘화냄’, ‘논쟁’ 등의 문제행동을 주로 보였고, 공격적 집단은 ‘습격’, ‘싸움’, ‘따돌림’ 등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반면 지위위반과 기물파괴 집단은 ‘무단결석’, ‘물질복용’, ‘등과’, ‘도벽’, ‘방화’, ‘거짓말’ 등의 뚜렷한 품행문제를 나타냈다. Frick의 2차원 모형(Frick et al, 1993)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시 한번 검증된 바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다(Rey & Morris-Yates, 1993). 또한 Frick의 2차원 모형은 각 유형에 따라 공격행동이 서로 다른 발달적 경로를 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발생 시기 면에서 각 유형들은 차이가 있어, 반항적 집단은 4세 경, 공격적 집단은 6세 이후에 문제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물파괴 집단은 7.5세, 지위위반집단은 9세 경에 문제가 시작되었다(Frick et al, 1993). 또한 연령증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어, 공격적 행동은 연령증가와 함께 점차 감소했지만, 지위위반같은 문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Tremblay, 2000). 이처럼 공격행동의 발현 시기와 발달경로를 파악하게 되면, 각각의 공격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임상장면에서 접하게 되는 반항장애와 품행장애에 대해서도 Frick의 2차원 모형을 적용하여, 반항장애는 반항적 행동유형을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하고 품행장애는 공격성 집단, 기물파괴집단, 지위위반 집단이 혼재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이에 따라 발현시기를 구분하기도 한다.

한국판 CBCL(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K-CBCL; 오경자, 김영아, 2010)은 부모가 평정하는 행동평가척도로 전반적인 아동·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상담소, 학교, 종합병원 등 여러 임상장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K-CBCL은 전문가가 아닌 부모가 평정하게 되며, 우울이나 불안, 위축과 관련된 내재화된 문제 뿐 아니라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 등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판 YSR(Korean version of the Youth Self Rating Behavior Checklist for Ages, K-YSR ; 오경자, 김영아, 2010)과 거의 유사한 영역의 아동 및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K-CBCL을 통해 부모가 평정한 평가내용과 아동·청소년이 K-YSR을 통해 평정한 평가내용 간의 일치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K-CBCL은 아동기 외현화 문제(external problem)를 공격행동과 규칙위반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은 명백한 공격행동(overt-aggressive behavior)과 은밀한 비행행동(covert delinquent behavior)이라 규정된다(Achenbach, 1991b). K-CBCL의 이같은 구분은 문제행동의 발생원인과 외부 요인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Frick의 공격성 2차원 모형(Frick et al, 1993)에 따르면, 명백한 공격성 역시 파괴적/비파괴적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세분할 경우 발달적 경로 및 성차 등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또한 K-CBCL 문제행동척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K-CBCL의 공격행동척도는 다양한 양상의 다소 이질적인 공격행동을 포괄하고 있어, 때로 해석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K-CBCL의 공격행동척도의 유형을 좀더 세분하여 살펴본다면 공격행동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CBCL의 문제행동척도 중 하나인 공격행동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여 K-CBCL로 측정한 아동기 공격행동을 하위요인으로 세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한 K-CBCL 공격행동의 하위유형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K-CBCL의 새로운 개정판(오경자, 김영아, 2010)을 위해, 한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7개 학교에서 표집한 규준집단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규준집단 자료 중 K-CBCL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서 결측치가 8개 이상인 자료와 학년급간,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빠진 자료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616명의 자료(초등학교 남학생: 503명, 초등학교 여학생: 484명, 중·고등학교 남학생: 850명, 중·고등학교 여학생: 779명)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한편 K-CBCL을 통해 검증할 공격행동의 2요인 부분이 K-YSR에도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K-YSR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K-YSR(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의 새로운 개정판(오경자, 김영아, 2010)을 위해 표집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1,62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부모용(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한국판 CBCL 6-18)

K-CBCL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로 주양육자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K-CBCL 및 K-YSR의 원검사는 Achenbach(1991a, b)가 개발하였는데, 그는 2000년부터 CBCL과 YSR을 비롯한 일련의 기존 검사군을 전연령대 행동평가 검사로 재개편하여

ASEBA(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Achenbach & Rescorla, 2000, 2001)로 체계화하였다. Achenbach와 Rescorla(2000, 2001)가 재개정된 CBCL 6-18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K-CBCL 개정판(오경자, 김영아, 2010)은 원저작자의 개편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연령대를 기존의 4-18세에서 6-18세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존의 CBCL(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문항들이 아동·청소년기에 주로 보이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원저작자의 논의(Achenbach & Rescorla, 2000, 2001)에 따라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대신 ‘부모님의 허락 없이 술을 마신다’는 문항이 새로 들어가게 되었다. K-CBCL 개정판의 주요 척도는 문제행동척도로, 아동·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서행동문제를 기술한 112개의 문항과 그 이외의 문제를 서술하도록 되어 있는 개방식 문항 1개 등 총 1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56번 문항은 8개의 세부 문항으로 되어 있다. K-CBCL의 문제행동척도 중 8개 증후군 척도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문제,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척도이며, 이들은 내재화척도, 외현화척도, 총문제행동척도 등 3개 상위척도로 다시 포괄된다. 내재화척도에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척도가 포함되고, 외현화척도에는 규칙위반, 공격행동척도가 포함된다. 총문제행동척도는 문제행동 문항 전체의 합으로 점수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K-CBCL 개정판의 문제행동척도 중 공격행동척도와 규칙위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K-CBCL에서 각각 공격성척도, 비행척도라고 명명되었던 척도로 기존 문항과 개정판

의 문항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K-CBCL 개정판의 공격행동은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주양육자가 지난 6개월 내에 아동·청소년이 그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전혀 아니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청소년 자기 행동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Youth Self Rating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2-18; 한국판 YSR 12-18)

Achenbach와 Rescorla(2000, 2001)가 재개정한 YSR 6-18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K-YSR의 개정판(오경자, 김영아, 2010) 중 공격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 개정판의 공격행동척도는 총 17문항으로, K-CBCL 개정판의 공격행동척도 문항과 동일한 내용이며 단지 1문항만 제외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청소년 본인이 지난 6개월 내에 자신이 그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전혀 아니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7.0판을, 이를 제외한 모든 분석은 SPSS 15.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결 과

K-CBCL 공격행동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이를 통해 파악된 요인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시행하여 요인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원칙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한 표본이 아닌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2,616명의 표본을 무선적인 방법을 통해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집단(1,308명: 초등 남학생 252명, 초등 여학생 242명, 중·고등 남학생 425명, 중·고등 여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또 다른 집단(1,308명: 초등 남학생 251명, 초등 여학생 242명, 중·고등 남학생 425명, 중·고등 여학생 390명)을 대상으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K-CBCL 공격행동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공격행동척도의 18개 문항들이 몇 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1요인에서 2요인 모형으로 요인수가 증가할 때에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RMSEA)가 좋아지지만, 2요인에서 3요인 모형으로 요인수가 증가할 때는 적합도 지수의 변화가 미미하였다. 통상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01 이하이면 모형적합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요인수 증가에 따른 모형변화가 크지 않다면 될 수 있으면 적은 수의 요인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권장되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2요인 모형 구조가 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요인 모형 별 적합도 지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 모형 적합도 결과를 기초로,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표 1. K-CBCL 공격행동 요인모형의 적합도

요인 모형	χ^2	df	p	RMSEA
1요인 모형	1637.608	135	.000	0.0922
2요인 모형	730.120	118	.000	0.0630
3요인 모형	536.037	102	.000	0.0571

때 특정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30이 되어야 하며, 두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계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Floyd & Widaman, 1995)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은 해당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따라서 18문항 중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4문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14문항이 선택되었다(제외된 4문항: 20. 자기 물건을 부순다, 22. 집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 95.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표 2. K-CBCL 공격행동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1	요인2
요인1 : 반항적 공격성		
86.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808	-.078
87.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760	-.003
88. 자주 부루퉁해진다.	.760	-.140
68. 고함을 많이 지른다	.477	.116
3. 말다툼을 많이 한다	.470	.134
19.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443	.061
89. 의심이 많다.	.431	.065
요인2 : 직접적 공격성		
57.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36	.677
16.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047	.644
97. 남을 위협한다.	-.095	.630
37. 싸움을 많이 한다	.135	.553
21.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030	.452
23. 학교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	.208	.425
94. 남을 잘 놀린다.	.106	.414
	고유치	3.860
	설명변량	27.569

데굴데굴 구른다, 104. 유난히 소란스럽다).

분석 결과, 두 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3.860, 1.170이었고, 두 요인은 전체 변량의 35.929%를 설명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요인별 설명변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1은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말다툼을 많이 한다’ 등 7개 문항이 해당되어 <반향적 공격성>이라 명명하였고, 요인2는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등 7개 문항으로 <직접적 공격성>이라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K-CBCL의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공격행동척도의 2요인 모형을 반복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무선적인 방법을 통해 나눈 두 집단 중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지 않은 집단(1,30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한 1요인, 2요인, 3요인 모형을 기초하여 각각 1요인, 2요인, 3요인 모형을 구성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3가지 모형은 다음과 같다.

1요인 모형

K-CBCL 공격행동척도의 원문항 18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K-CBCL 공격행동척도가 동일한 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2요인 모형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하여 K-CBCL 공격행동척도 14개 문항(각 요인별로 7개 문

항씩 포함)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2요인 상관구조를 가정하였다.

3요인 모형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하여 K-CBCL 공격행동척도 16개 문항(요인1: 7문항, 요인2: 7문항, 요인3: 2문항)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3요인 상관구조를 가정하였다.

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해, 도출된 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지를 알려주는 상대적 적합도 중 GFI, CFI, TLI 값(Bentler, 1990; McDonald & Marsh, 1990)과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 중 하나인 RMSEA값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GFI, CFI, TLI 값은 0과 1.0 사이이며 어떤 이론적 모형에 대한 이들 값이 대략 0.9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또한 RMSEA값은 대략적인 기준으로 <.05이면 좋은 적합도로, <.08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10이면 보통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분석 결과, RMSEA값을 비롯하여 TLI, CFI 등 다른 적합도 지수들의 값을 살펴볼 때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2요인 모형 구조가 표본의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 모두 우수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2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좀더 나왔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요인수 증가에 따른 모형 변화가 크지 않다면 될 수 있으면 적은 수의 요인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권장되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때에도 2요인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판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각 공격행동 요인 모형들의 적합도

요인 모형	χ^2	df	p	RMSEA	CFI	TLI	GFI
1요인 모형	1574.076	135	.000	0.090	0.744	0.710	0.864
2요인 모형	456.404	76	.000	0.062	0.905	0.887	0.949
3요인 모형	730.744	101	.000	0.069	0.873	0.850	0.932

단하였다. 각 요인 모형 별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한편 성별 및 연령 별로 나눈 집단에서도 2요인 모형이 모두 적합하게 나온다면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의 보편적인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초등 남학생 집단, 초등 여학생 집단, 중·고등 남학생 집단, 중·고등 여학생 집단, 이렇게 네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서 2요인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 모두에서 RMSEA 값을 비롯하여, GFI, TLI, CFI 등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14문항으로 이루어진 K-CBCL 공격행동 2요인 구조는 초등, 중·고등 집단 및 남녀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더불어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이 K-YSR의 표본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나온다면, 설문의 평정자가 달라져도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지지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Achenbach, Stephanie, McConaughy와 Howell(1987)은 서로 다른 평정자 간의 일치도를 보고한 119개의 연구자료를 메타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일치도는 평균 $r=.60$ 인데 반해, 아동·청소년과 부모 혹은 아동·청소년과 교사와의 일치도는 평균 $r=.22$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이 보이는

문제영역에 대해, 부모는 자녀의 외현화된 행동이 더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반면, 아동·청소년 자신은 우울감,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지각했다(Edelbrock, Costello, Dulcan, Conover & Kalas, 1986). 이처럼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평정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평정하는 K-CBCL에서 도출한 모형이 K-YSR에서 높은 적합도를 보인다면 그만큼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K-YSR의 표본을 대상으로, K-CBCL 공격행동의 2요인 모형에 대해 동일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RMSEA, GFI, TLI 등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에서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보여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이 K-CBCL 뿐만 아니라 K-YSR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형이며 통계적으로 타당한 요인구조임이 확인되었다. 각 집단 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또한 도출한 K-CBCL 공격행동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두 하위유형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때 성별 및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집단 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CBCL 공격행동의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의 상관계수는 초등 남학생 집단에서는 $r=.620$, 초등 여학생 집단

표 4.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에 대한 K-CBCL 및 K-YSR 표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RMSEA	CFI	TLI	GFI	
K-CBCL	전체 (n=1,308)	456.404	76	0.062	0.905	0.887	0.949	
	초등학생	남 (n=251)	199.858	76	0.080	0.870	0.844	0.898
		여 (n=242)	236.043	76	0.088	0.843	0.812	0.879
	중·고등학생	남 (n=425)	299.675	76	0.083	0.861	0.833	0.907
		여 (n=390)	191.888	76	0.063	0.835	0.803	0.933
전체 (n=1629)		444.509	64	0.060	0.897	0.874	0.959	
K-YSR	중·고등학생	남 (n=850)	337.507	64	0.071	0.867	0.838	0.941
		여 (n=779)	195.156	64	0.051	0.922	0.905	0.962

에서는 $r=.556$, 중·고등 남학생 집단은 $r=.517$, 중·고등 여학생 집단은 $r=.418$ 로 나타났다. 또한 K-YSR의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의 상관계수는 중·고등 남학생 집단에서 $r=.585$, 중·고등 여학생 집단에서는 $r=.551$ 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두 하위유형 간의 관계가 중간 정도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두 하위유형이 완전히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어느 정도 서로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격행동 하위유형들의 연령별 추이 및 성차

K-CBCL 공격행동척도를 토대로 도출된 공격행동 하위유형들은 그 특성에 따라 연령 및 성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를 통해 공격행동 하위유형이 각각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이에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K-CBCL 및 K-YSR의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에 대해 성(2) X 연령집

단(4)을 두 요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연령집단은 집단구분이 용이한 학년급간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고학년(4,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K-CBCL 및 K-YSR의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의 점수 수준 및 차이는 표 5와 그림 1-6에 제시되었다.

한편 외현화문제에 포함된 K-CBCL 및 K-YSR의 규칙위반척도 역시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를 반영하므로, 연령 및 성별에 대한 분석에서 규칙위반척도를 추가한다면 공격행동의 양상을 좀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외현화 척도를 구성하는 규칙위반척도에 대해서도 성(2) X 연령집단(4)을 두 요인으로 하여 추가적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K-CBCL 반항적 공격성은 연령 및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 $F(3, 2608)=4.208$, $p<.001$, $F(1,2608)=12.651$, $p<.001$ 둘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3, 2608)=.438$, ns . 무엇보다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여학생

표 5. 연령집단 및 성별집단에 따른 K-CBCL, K-YSR 반항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규칙위반점수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남(<i>n</i> =247)	여(<i>n</i> =228)	남(<i>n</i> =256)	여(<i>n</i> =256)	남(<i>n</i> =430)	여(<i>n</i> =362)	남(<i>n</i> =420)	여(<i>n</i> =417)	
K-CBCL	반항적 공격성	1.94(2.08)	2.14(2.23)	2.11(2.33)	2.34(2.45)	1.83(2.17)	2.24(2.29)	1.58(2.10)	2.01(2.21)
	직접적 공격성	.76(1.43)	.36(1.00)	.71(1.45)	.34(.92)	.54(1.07)	.28(.69)	.40(1.07)	.25(.64)
	규칙위반	1.01(1.56)	.71(1.19)	1.09(1.68)	.75(1.23)	1.16(1.83)	.80(1.38)	1.13(2.34)	.77(1.36)
K-YSR	반항적 공격성					3.06(2.28)	3.88(2.60)	3.31(2.54)	3.74(2.59)
	직접적 공격성					2.06(1.93)	1.51(1.61)	1.73(1.90)	1.39(1.47)
	규칙위반					2.59(2.37)	2.36(2.28)	3.28(3.30)	2.17(2.17)

이 남학생에 비해 반항적 공격성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항적 공격성이 가장 상승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기간이었다. K-CBCL 직접적 공격성 또한 연령 및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지만, $F(3, 2608)=6.363, p<.001, F(1, 2608)=46.797, p<.001$ 들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3, 2608)=1.777, ns$. 하지만 K-CBCL 직접적 공격성은 성별집단에서 반항적 공격성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직접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중학교 이후에는 성차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시기에 직접적 공격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되었고, 중학교 이후에는 수치가 점차 감소하였다. 한편 공격행동을 포괄하는 외현화 문제 중 하나인 K-CBCL 규칙위반점수의 연령 및 성별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 규칙위반은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했으나 $F(1, 2608)=25.626, p<.001$, 연령집단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3, 2608)=.540, ns, F(3, 2608)=.034, ns$. K-CBCL 규칙위반은 K-CBCL 직접적 공격성과 유사하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연령집단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 가장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별로 살펴보면, K-CBCL 직접적 공격성, 반항적 공격성, 규칙위반 순으로 문제의 최대 발현 시기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K-YSR 반항적 공격성은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F(1, 1625)=24.973, p<.001$, 연령집단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1625)=.229, ns, F(1, 1625)=2.565, ns$. K-YSR 직접적 공격성의 경우,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했고, $F(1, 1625)=27.001, p<.001, F(1, 1625)=6.722, p<.05$,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1625)=1.472, ns$. K-YSR 규칙위반점수의 연령집단 및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규칙위반은 성별과 연령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했고, $F(1, 1625)=27.576, p<.001, F(1, 1625)=3.947, p<.05$,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했다, $F(1, 1625)=11.83, p<.001$. K-YSR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에서도 K-CBCL의 결과와 동일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K-YSR 반항적 공격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반면, K-YSR 직접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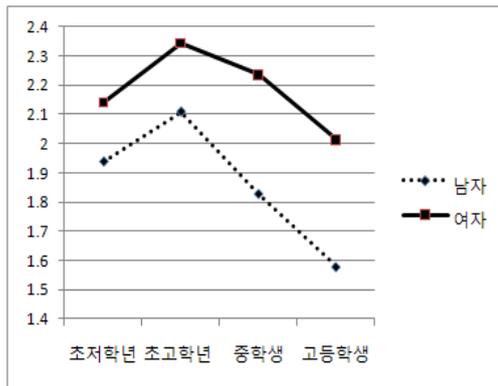


그림 1. K-CBCL 반항적 공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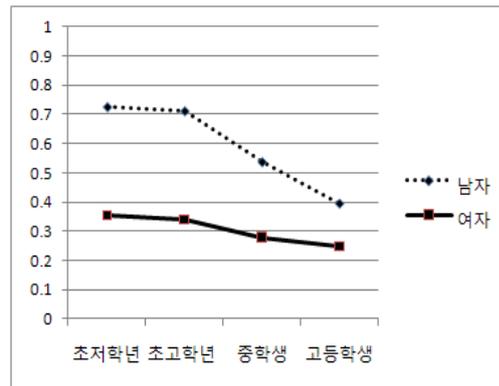


그림 2. K-CBCL 직접적 공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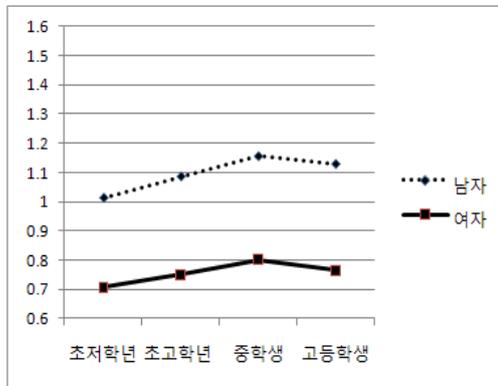


그림 3. K-CBCL 규칙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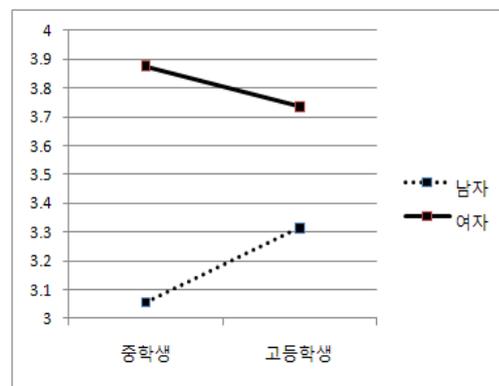


그림 4. K-YSR 반항적 공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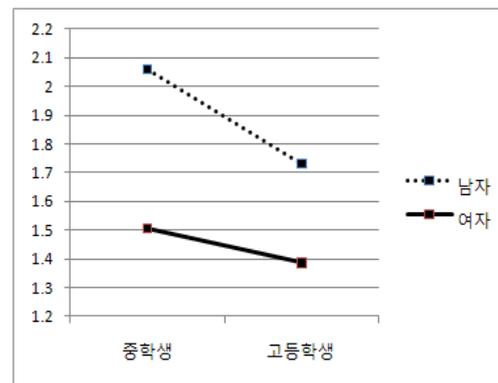


그림 5. K-YSR 직접적 공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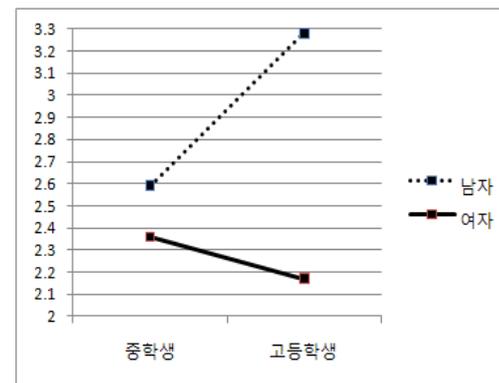


그림 6. K-YSR 규칙위반

되었다. 또한 K-YSR 규칙위반에서도 K-CBCL 규칙위반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남학생의 경우, K-CBCL과 K-YSR 결과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K-CBCL 반항적 공격성과 규칙위반은 고등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K-YSR의 반항적 공격성과 규칙위반은 고등학교 시기에 극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본인의 지각 간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공격행동 하위유형과 K-CBCL 및 K-YSR의 문제행동척도 간의 상관관계

공격행동 하위요인과 K-CBCL 및 K-YSR의 문제행동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 및 성별집단 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K-CBCL 및 K-YSR의 내재화척도에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척도가 포함되고, 외현화척도에는 규칙위반, 공격행동척도가 포함된다. 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내재화척도와외의 상관은 반항적 공격성이 직접적 공격성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

표 6. K-CBCL/K-YSR 공격행동 하위유형과 K-CBCL/ K-YSR 문제행동척도간 상관

			K-CBCL 규칙위반	K-CBCL 내재화 척도	K-CBCL 외현화 척도	K-CBCL 문제행동 총점
K-CBCL	초등학교 남자	반항적공격성	.626	.669	.882	.822
		직접적공격성	.736	.452	.856	.699
	초등학교 여자	반항적공격성	.587	.675	.815	.832
		직접적공격성	.586	.455	.761	.652
	중·고등학교 남자	반항적공격성	.599	.657	.857	.793
		직접적공격성	.669	.411	.789	.625
중·고등학교 여자	반항적공격성	.502	.633	.697	.823	
	직접적공격성	.552	.273	.658	.493	
			K-YSR 규칙위반	K-YSR 내재화 척도	K-YSR 외현화 척도	K-YSR 문제행동 총점
K-YSR	중·고등학교 남자	반항적공격성	.597	.684	.842	.824
		직접적공격성	.654	.470	.841	.690
	중·고등학교 여자	반항적공격성	.562	.658	.867	.823
		직접적공격성	.566	.425	.789	.645

표에 제시된 모든 상관관계 값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었다. 외현화척도와외의 상관관계는 반항적 공격성이 직접적 공격성보다 경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현화척도 안에 공격행동척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성별 및 연령 집단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칙위반척도와외의 상관관계는 직접적 공격성이 반항적 공격성에 비해 경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경향성은 K-CBCL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을 제외한 K-CBCL 성별 및 연령 집단 전체와 K-YSR 집단 전체에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반항적 공격성은 내재화와 관련된 문제행동과, 직접적 공격성은 규칙위반과 같은 비행문제와 좀더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행동의 하위유형이 서로 다른 기제를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을 지지해준다. 각 집단 별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K-CBCL의 문제행동척도 중 하나인 공격행동척도를 요인분석하여 K-CBCL의 공격행동을 하위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K-CBCL 공격행동 하위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CBCL 공격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검증된 2요인 모형을 K-CBCL과 K-YSR 표본에 적용하여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공격행동의 하위 2요인과 다른 문제행동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

았고, 공격행동 하위유형별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K-CBCL 공격행동척도가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로 도출한 2요인은 각각 비파괴적인 반항적 공격성과 파괴적인 직접적 공격성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요인별로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반항적 공격성은 ‘고집에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자주 뿌루뚱해진다’, ‘고함을 많이 지른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파괴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간접적이고 미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공격성 혹은 분노감정을 반항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항적 공격성에 해당되는 문항 중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의심이 많다’는 내용상 다소 이질적인 듯 느껴지나 반항적 공격성의 미성숙하고 간접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해당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직접적 공격성은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남을 위협한다’ 등의 문항내용에서 보듯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하는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K-CBCL의 공격행동 하위유형은 Frick의 2차원 모형(Frick et al, 1993)에서 제시한 4개 공격행동 유형 중 반항적 행동, 공격적 행동과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현재 K-CBCL 공격행동척도를 유형별로 좀더 세분한다면 발생시기 및 발달경로, 성차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정 문항의 요인부하계

수가 .30이 되어야 하며, 두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 계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Floyd & Widaman, 1995)을 충족하지 못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K-CBCL 공격행동척도의 4문항이 제외되었다. 이 중 ‘자기 물건을 부순다’,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유난히 소란스럽다’ 3문항은 요인부하계수가 두 요인에서 모두 .30 미만이어서 제외되었고, ‘집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문항은 반항적 공격성에 대한 요인부하계수는 .30을 초과하였으나 직접적 공격성과의 요인부하계수 차이가 .10 미만으로 미미하여 제외되었다. ‘집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문항이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 둘 다에 상당한 요인부하를 받은 것은 K-CBCL의 평정자인 부모가 문항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문항내용에 대해, 가정 내에서의 반항적 행동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의 신체적 다툼이나 괴롭힘 같은 사소한 폭력적 행동 등을 포함해서 해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집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와 일견 유사해보이는, ‘학교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문항은 직접적 공격성 요인에 포함되었다. 이 역시 K-CBCL의 평정자인 부모의 해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자녀가 학교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을 부모가 심각하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신체적이거나 폭력적인 공격행동 때문에 실질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많다. 즉 부모 평정자에게 ‘학교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문항내용은 반항적 공격성보다는 직접적 공격성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어, 본 요인분석에서 해당 문항이 직접적 공격성 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을 연령 및 성별집단에 각각 적용했을 때, 적합도지수가 모두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K-YSR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이 K-CBCL 표본 뿐만 아니라 K-YSR 표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안정된 모형임을 의미하는 바, 공격행동을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임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두 가지 공격행동의 하위유형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K-CBCL의 경우 연령집단 및 성별집단 모두에서 공격행동 하위유형 간 상관계수가 .517-.612로 K-YSR은 .551-.585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공격행동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했는데, 일부 연구에서 .70 - .90에 가까운 상관계수가 산출되어 측정방법 및 표본추출, 자료분석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Little, Jones, Henrich & Hawley,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모든 집단에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도출한 K-CBCL 공격성의 하위유형들이 상위 개념상으로는 공격성에 둘 다 속하지만 하위 개념상으로는 서로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개별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K-CBCL 공격행동 하위유형이 발달단계 특성과 성차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 여 그리고 초등 학교 저학년(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4-6학

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 8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공격행동 하위유형 점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공격행동의 하위유형별로 성별과 학년급간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차와 발현시기에서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둘 간의 발달경로나 원인기제가 다를 가능성을 지지해준다. 우선 공격성의 하위유형별로 성차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반항적 공격성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직접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같은 경향성은 K-CBCL 뿐만 아니라 K-YSR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더불어 은밀한 비행행동(covert delinquent)을 반영하는 규칙위반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진 비행문제를 갖는 품행장애의 유병률 연구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발생비율을 보인다고 한다(Lahey, Miller, Gordon & Riley, 1999). 반면 여학생은 외현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보다는 좀더 간접적인 형태의 비행행동 및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Loeber & Hay, 1997). 이에 대해 사회적 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 SRT : Eagly, 1987)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녀는 각각 다른 성역할을 맡게 되고 그 성역할에 걸맞는 행동패턴을 보이면서 공격행동의 패턴에서도 성차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맥락 하에서 남아의 공격적 행동은 허용적으로 수용되고 때로는 장려되기까지 하지만, 여아의 경우는 공격적 행동을 억압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여학생에게 직접적 공격성보다 반항적 공격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난 것 역시 사회적 허용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사회는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외현화 문제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여학생에게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 비난을 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여학생은 상대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기보다는 짜증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식의 반항적 태도로 자신의 공격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K-CBCL 공격행동 하위유형은 최대 발현 시기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 K-CBCL 결과를 살펴보면, 반항적 공격성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증가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가장 높이 상승한 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줄어들었다. 반면 직접적 공격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가장 높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추가적으로 확인한 규칙위반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시기에 최고점에 이른 뒤 고등학교 때 약간 저하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따라서 최대 발현시기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직접적 공격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뒤 반항적 공격성, 규칙위반 순으로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양상은 K-YSR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시기로 갈수록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이 모두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다. 단, 예외적으로 남학생은 K-YSR 반항적 공격성과 K-YSR 규칙위반이 중학교 시기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 상승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본인의 지각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유독 고등학교 남학생 집단에서만 외현화 문제에 대한

부모와 본인 간 평정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연령 및 성별집단별로 평정자 간 보고의 차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단편적 현상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공격행동의 발달적 경로를 자세하게 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발달적 시기에 따라 주요하게 나타나는 공격행동의 유형이 다르다는 결과는 생각해보면 만한 함의점을 갖고 있다. Loeber, Green, Lahey, Christ와 Frick(1992)은 고위험군 소년들을 대상으로 품행장애를 예언하는 발달적 경로를 탐색하였다. 그들은 품행장애를 명백한/은밀한(overt/covert), 파괴적/비파괴적(destructive/ nondestructive)으로 구분한 뒤, 3개의 발달적 경로를 확인하였다. 첫째는 권위갈등경로(authority conflict path)로, 고집 센 행동이 반항 및 불복종으로 이어지고 이후 무단결석, 늦은 귀가 등 규칙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권위갈등경로는 다른 경로에 비해 비행수준이 낮고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두번째는 은밀한 경로(covert path)로 도벽, 잦은 거짓말 같은 경미하고 비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점차 사기, 강도 등 재산과 관련된 품행문제로 발전한다. 세번째는 명백한 경로(overt path)로 아동기 초기부터 공격성을 드러내며 신체적 싸움 등을 벌이고 강간, 폭력 등의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K-CBCL 공격행동의 하위유형인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이 모두 초등학교 시기에 최대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좀더 심화된 품행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규칙위반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좀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는 K-CBCL 및 K-YSR의 공격행동 유형에 따라 이후 품행장애를 비롯한 심

각한 문제행동을 예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즉 K-CBCL 반항적 공격성이 두드러지는 아동의 경우, 이후 권위갈등 경로를 거쳐 비파괴적인 규칙위반(지위위반)으로 이행될 수 있고, K-CBCL 직접적 공격성이 두드러지면 내재적 혹은 외현적 경로를 거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품행장애를 가진 모든 청소년들이 아동기에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아동기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하여 모두 품행장애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K-CBCL 공격행동을 통해 모든 품행장애를 예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격행동의 하위유형 별로 발달경로가 다르다면, K-CBCL 공격행동 하위유형의 상승을 확인하여 적어도 위험성의 예측지표 중 하나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 그리고 K-CBCL 및 K-YSR의 문제행동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반항적 공격성은 직접적 공격성에 비해 내재화척도(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적 불편)와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반면 직접적 공격성은 반항적 공격성에 비해 비행문제를 반영하는 규칙위반척도와의 상관관계가 경미한 수준이지만 좀더 높았다.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감과 공격성을 표출하는 아동·청소년은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를 내재화된 방식으로 드러내지만,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은 실질적인 외현화 문제 및 품행장애를 통해 문제를 발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이 서로 다른 기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치료적 개입에도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내재화문제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은 겉으로 문제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성은 반항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아이’로 취급될 뿐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재화척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 행동총점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에서 보듯, 반항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가 외현적인 공격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며 좀더 문제가 심화된 이후 발견되어 치료시기를 놓칠 확률도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K-CBCL 공격행동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 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고, 각 하위유형별로 성차 및 발달적 경로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K-CBCL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문제행동척도 중 하나로 사용되는 공격행동만을 세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공격행동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도출된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이 폭넓게 지지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는 지역 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좀더 심각한 임상적 문제를 보이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도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상집단을 표집하여 K-CBCL 공격행동 2요인 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양상이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CBCL 및 YSR 자료를 토대로 비교문화적 분석을 해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K-CBCL의 외현화 문제 중 공격척도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규칙위반을 포함한 CBCL의 외현화 문제를 세분하여 Frick의 2요인 모형을 검증한 바 있다. 실제로 Heubeck(2000)은 CBCL의 공격행동척도와 규칙위반척도를 통해, 정서적인 행동화 요인(emotional acting-out factor), 심술궂고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행동 요인(mean, aggressive and destructive factor), 회피적인 비행 요인(evasive, delinquent factor) 세 가지 행동문제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K-CBCL 공격행동척도와 규칙위반척도를 통합하여 외현화 문제 전체를 조망할 경우, 공격성과 비행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규칙위반척도까지 포괄하여 K-CBCL의 외현화문제를 세분해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변량분석을 통해 간단하게 공격행동 하위유형별로 연령 및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고, 각 공격유형의 발현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발달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성별과 연령시기에 따라 개별 공격행동들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공격행동 및 품행문제의 경로가 확인된다면, 품행장애의 예측 및 개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경자, 김영아 (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매뉴얼, 미간행 출판물.
- 오경자, 김영아 (2010).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매뉴얼, 미간행 출판물.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1), 161-177.
- Achenbach, T. M., Stephanie. H., McCona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 *Implication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of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chenbach, T. M. (1991a).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1991b). *Manual for Youth Self 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exed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38-24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oie, J. D., Lochman. J. F., Terry. R., & Hyman,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783-792.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779-862). New York : John Wiley.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 feeling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 201-21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delbrock, C., Costello, A. J., Dulcan, M. K., Conover, M. C., & Kalas, R. (1986).

- Parent-child agreement on child psychiatric symptoms assessed via structured inter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ical Psychiatry*, 24, 181-190.
- Eron, L. D. (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 197-211.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86-299.
- Feschbach, A. (1970). Aggression. In P. H. Mussen (Eds.).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pp.159-259). New York: Wiley.
- Frick, P. J., Lahey B. B., Loeber, R., Tannenbaum, L., Van Horn, Y., Christ, M. A., Hart, E. L., & Hanson, K. (1993).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A meta-analytic review of factor analyses and cross-validation in clinic samp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319-340.
- Heubeck, G. B. (2000).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CBCL syndrome across three continents : from the USA and Holland to Austral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439-450.
- Lahey, B. B., Miller, T. L., Gordon, R. A., & Riley, A. W. (1999). Developmental epidemiology of the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In Quay, H. C., & Hogan, A.(Eds), *Handbook of the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pp 23-48). New York : Plenum.
-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22-133.
- Loeber R., Green, S. M., Lahey, B. B., Christ M. A., & Frick, P. J. (1992). Developmental sequences in the age of onset of disruptive child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 21-41.
- Loeber, R., & Hay, D. F.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McDonald, R. P., & Marsh, H. W., (1990). Choosing a multivariate model: noncentrality and goodness of fit. *Psychological Bulletin*, 107, 247-255.
- Newman, D. L., Caspi, A., Moffitt, T. E., & Silva, P. A. (1997). Antecedents of adult interpersonal functioning: Effect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age 3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06-217.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ggressive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Rey, J. M., & Morris-Yates, A. (1993). Are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s of adolescents separate condition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7, 281-287.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29-141.
- 원고접수일 : 2010. 10. 25.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2. 05.
최종게재결정일 : 2010. 12. 24.

A study on two subtypes of Aggression based on the K-CBCL aggressive behavior subscale

Dohee Bae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btypes of aggression based on the factor analysis of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6-18 aggressive syndrome scale. Participants were the normative sample for the K-CBCL 6-18 revised version (1,353 boys and 1,263 girls) and the K-YSR 6-18 revised version (850 boys, 779 girls). Exploratory factor analyses produced a 2-factor solution on 14 of the K-CBCL's original aggressive behavior subscale 18 items. Factor 1 was "Oppositional Aggression", factor 2 was "Direct Aggression". In addition, we confirmed the fitness of 2-factor structure according to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hich indicated that 2-factor structures exist for both the K-CBCL and K-YSR. When the differences in mean of each subtype of aggression for different age and gender groups were explored, the results varied according to age and gender. In the case of girl groups, oppositional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direct aggression. However, in the case of boy groups, direct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ppositional aggression. Oppositional aggression escalated between the lower grades and the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decreased with age. On the other hand, direct aggression showed the highest scores among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declined over time. Moreover,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oppositional aggression showed higher correlations with internalizing problems while direct aggression showed higher correlations with rule breaking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 and this provided good evidence that 2-subtypes of aggression model is valid.

Key words : Childhood aggression, oppositional aggression, direct aggression, K-CBCL 6-18, K-YSR 6-18